

종말의 때와 시기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 1-11

1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모르나니.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4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5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7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라. 8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흥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10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11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1. '주의 날'의 때를 알 수 있는가?

가. 사도 바울께서는 '그 때와 시기'[1 절]에 관하여 언급했는데, '그 때'는 4 장 마지막 부분에서 휴거의 사건을 언급한 데 이어서 '그 때'를 언급했으므로 그 때는 '휴거의 때'를 말한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 절에서는 이 휴거의 때를 '주의 날 [Day of the Lord]'으로 새롭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구약 대언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에서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서,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왕중의 왕으로 재림하는 기간을 통칭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구약에서 보는 '주의 날'은 다음 구절들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3: 6, 9	예레미야 34:8, 46:10	요엘 1: 15; 2:1, 11, 31; 3:14
아모스 5: 1`6, 18, 20	오바댜 1:15	스바냐 1: 1,2,7,14,18
스가랴 14:1	말라기 4:1, 5	

사도 바울께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이 대언자들의 예언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서신에 여러 군데 이 날에 관해 경고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고전 1:8; 5:5; 고후 1:14, 살전 5:1,2]. 또한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의 날에 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이에 관해 묘사하였습니다 [베후 3:10].

나. 주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라서 그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태 24: 3].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37 년 후에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완전 파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의 재림의 날, 즉 '주의 날'에 관하여 상세하게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24 장, 25 장, 누가 21 장].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며 오직 내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주님의 날이 이를 것인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no man knoweth"는 현재형으로서 그 당시에는 주님조차 인간의 제약 하에 있었으므로 그 날을 모르셨지만 승천 후에 하나님 옆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날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 다니엘 역시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아 이를 기록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매우 놀라워 했고 그 시기에 대해 많이 궁금해서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단 12:8]"라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단 12:9]” 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이 임하는 때,” 즉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종말 예언은 이미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에게 풀려 졌습니다. 즉, 봉인이 풀려 졌습니다. 더 이상 ‘그 때와 시기’를 모르는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징조들을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복음의 가지와 잎이 피어나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일부 열매에 관해 듣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결실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 5-12 절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도둑처럼 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견하고 고대하는 날인 것입니다 [데살 5:4].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이므로 잠자는 열 처녀가 아니고 깨어 근신하면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신부된 성도의 기다리는 자세

가. 참 성도는 이러한 무서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6 절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고 권면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 목회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도 재림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종말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알기조차 싫어하고, 듣기 싫어 합니다. 7 절의 표현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며 다른 교리에 술취하듯 취해 있습니다.

나. 8 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흥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고 권면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의 위협,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와 홍수와 산불 등의 재앙과 자연 재해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때에 정신을 차려 이러한 재앙이 주님의 날에 앞서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비추어 현 시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흥감으로 서로 베풀고 이웃에게 더욱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우리의 구원의 때

가. 9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고 쓰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을 맞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 즉 마지막 환란 [Last Tribulation]의 3 년 반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고, 그 3 년반이 이르기 전에 살아 있는 우리가 휴거의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된 종파들에서 성도들이 이 진노의 3 년반을 경험할 것이므로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파고 살아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시력이 없고 다만 두려움에 찬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피신처를 짓고 그 안에 살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휴거의 때가 7 년 환란의 이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신학적 해석도 있고, 환란 7 년을 거의 다 경험할 것이므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여러 성경 구절은 신부된 교회가 극심한 환란의 기간인 3 년반은 피하여 그 이전에 휴거되고 하늘 왕국에서 신랑된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 계시록 14 장 14~16 절에 묘사된 ‘땅의 수확물’과 이를 주님께서 수확하시는 사건이 바로 땅에 있는 교회의 수확을 말합니다. 이 수확을 하실 때에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흰 구름 위에 금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수확하실 것입니다 [14:14]. 바로 이 수확이 휴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수확은 로마 교황청인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 사건 [14:8] 후에 있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 수확과 포도즙 틀 사건 [14:17-20]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거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후 관계와 그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들의 예언을 보면 그 ‘시기 [season]’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혹자는 계시록 7:14 절에 나오는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은 환난을 거친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수확 이후에 큰 환난을 거치면서도 진실한 믿음을 지킨, 환난 기간에 믿게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은 그 숫자가 매우 클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환난 기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우리의 소망

가. 주님의 날을 맞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소망은 휴거되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휴거 이전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둘째 소망은 주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와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늘 왕국에 남아 있고 ‘선택 받은 자들’을 천사들이 나팔소리로 불러 모아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이 땅에 왕중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 24: 29-31].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선택 받은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는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특권이 서로 다르게 되며, 우리가 받을 상급이 각자 다를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 그러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며 상급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 소망의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신부가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있을까요? 그 날을 위하여 드레스를 사고, 몸을 정결히 가꾸고 단장하며,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만일 신부가 그 날을 망각하고,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등 혼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랑 오실 때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주님의 날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휴거의 날을 고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망에 관해 얘기하고 준비할 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